

## ‘(귀)신의 분노’ 화소를 둘러싼 민담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투사’의 심리 문제

박재인\*

〈차  
례〉

1. 서론
2. ‘(귀)신의 분노’ 화소에 투사된 인간의 두려움
3. 두려움의 투사와 직면의 스토리텔링 및 치유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민담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인간의 심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본 논의로, ‘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상상하는 문학적 행위를 통해 인간은 어떠한 위안과 치유 방안을 강구하였나를 고찰하였다. 특히 인간의 두려움에 대응되는 ‘귀신의 분노’ 화소를 살펴봄으로써 그 대응적 관계에 반영된 인간의 심리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대표작으로 〈귀신의 저주〉는 인간이 귀신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 저주로 결국 비극적 운명에 좌절한다는 서사로 전개되는데, 이 이야기의 화소는 투사의 방어기제가 반영되어 있고, 서사적 맥락은 두려움에 대한 회피 욕망 및 강박적 인지과정과 닮아있다. 여기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투사의 한계점과 왜곡된 투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면,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서사에서 나아가 왜곡된 투사에서 벗어나는 서사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후자는 분노하는 신에 맞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인간이 대결하는 형상을 그려내고 결국 귀신은 권능의 한계를 인정하며 물러서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두려움이 귀신의 분노로 투사되는 과정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면서 두려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움의 투사체인 귀신의 정체를 직면할 수 있는 서사로 나아가는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준다. 인간의 인지형태와 민담의 스토리가 유사한 형태라고 전제할 때, 두 유형의 이야기들은 투사의 왜곡에 휘말려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투사의 왜곡에서 헤쳐 나와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극복하는 인간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귀신의 분노, 인간의 두려움, 민담의 스토리텔링, 투사(投射) 방어기제, 인지 왜곡

## 1. 서론

이 연구는 민담의 서사와 인간의 심리의 관련성을 고찰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선 '(귀)신'의 분노와 인간의 좌절 혹은 극복의 서사양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사라고 할 때에는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느냐의 문제인 '이야기'와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인 '이야기하기'를 포함한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 둘을 포괄하여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른 우리 내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문학의 치유적 효과를 함께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상상하는 문학적 행위에 집중한다. 이 화소에 주목한 까닭은 우선 옛이야기의 화소(motif)야 말로 사람들의

1) 이 연구에서 주목한 초월적 존재는 귀(鬼)와 신(神)의 경계에서 모호한 성격을 드러 내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과 연구대상 소개에서 우선 그 불확실성을 담아 '(귀)신'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존재의 불확실성 자체가 이 연구의 주제에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여 특별한 표기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적 특성은 본고에서 '(귀)신,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2장과 3장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 황국명, 「현단계 서사론의 과제와 전망」, 『인간·미래』 4, 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 8~11쪽.

세계인식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화소를 둘러싼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또한 “귀신이야기는 한국 서사문학 전반에 두루 발견”되고 “많은 유형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sup>4)</sup> 실체를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상상해왔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귀신에 대한 상상은 곧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이나 밝혀낼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인간의 이해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는 우선적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 ‘(귀)신의 분노’라는 감정에 주목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의 두려움’과 대립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 심리적 방어기제로 설명할 수 있어 ‘(귀)신의 분노’와 같은 문학적 요소를 상상해내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귀신설화를 유형화하고 그 전모를 살핀 임재해는 이 작품군이 “귀신의 정체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람과 귀신이 만나는 이야기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5)</sup> 이 유형론

3) 본고에서 주목한 ‘화소 [motif]’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자면, Thompson이 세계설화의 화소를 종합하여 색인화한 작업에 준할 때 ‘(귀)신의 분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문학에서는 ‘귀신’의 등장은 매우 흔하며 문학 속 초월적 존재의 분노와 향유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일정한 스토리나 문학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화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귀)신의 분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적 흥미와 긴장감 속에 가공의 상상세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특징적인 ‘문학적 언어’이자,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 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 한국화법학회, 2016, 64쪽.) ‘(귀)신의 분노 - 인간의 두려움 - 인간의 좌절/인간의 극복’이라는 스토리 문법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4) 윤주필, 「귀신이야기의 설화적 전통과 범주」, 『도술어문』 13, 단국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11쪽.

에 준하면, 본고에서 주목한 민담은 “사람이 귀신을 홀대한 탓에 벌을 받는 관계”와 “사람이 우위에서 귀신을 제압하거나 퇴치하는 관계” 유형에 속한다. 그 유형 속 ‘(귀)신의 분노’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좌절 혹은 극복의 모습은 실제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대응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갈래의 민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지금까지 구비문학연구에서는 ‘(귀)신의 분노’와 관련하여 금기 문제를 논해왔다. 주로 <장자못 전설>을 대상으로 금기 화소에 관하여 “신들이 설정한 운명적인 덧”<sup>7)</sup>으로 해석하고, 그 ‘처벌’의 결과를 “신과의 약속을 파괴한 불경건,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교만·방심”에 대한 신의 징벌<sup>8)</sup>로 이해하였다. 천혜숙은 신의 금기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신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제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5)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281~333쪽.

6)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설화의 스토리와 인간 심리의 관련성에 관하여, 설화의 화소와 서사구조를 인간의 인지(認知) 차원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동훈의 논문이 있다. 본 연구 역시 “원형적 스토리로서 구비설화의 서사는 형태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가 긴밀히 결합된” 인간의 인지구조를 보여준다는 관점에 따라(신동훈, 「인지기제로서의 스토리와 인간 연구로서의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6, 59~104쪽.) 민담의 스토리와 인간의 ‘투사’ 심리와 ‘강박적 인지기제’에 주목하였다.

설화에 나타난 스토리 구조가 인간의 인지기제와 닮아있다고 전제하면,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인간의 스토리 형태의 인지기제는 두 갈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귀)신이 분노하면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두려움에서 인간이 좌절하는가 혹은 이를 극복하는가를 중심으로 두 갈래의 서사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좌절과 극복의 서사 양 갈래 사이에는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를 중심으로 인간이 초월적 존재가 명령하는 가치체계에 순종하는가와 이에 맞서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주체로 나아가는가의 의미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심 화소를 축으로 하여 ‘인간의 좌절/인간의 극복’이라는 두 갈래의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7)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 장자못 전설과 함호(陷湖) 전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1,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25쪽.

8)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05~106쪽.

있다.<sup>9)</sup> 그리고 신동훈은 금기 화소에 얽힌 세계인식의 층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화와 신화들을 제시하며, 금기 화소의 금지나 억제는 표면적 요소이며 그 심층에는 “인간의 길과 또 다른 인간의 길 사이의 고갯마루(분기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였다.<sup>10)</sup> 이러한 기존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금기’라는 경계선보다는 ‘분노’라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화소의 의미와 함께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귀)신’이라는 존재와 ‘분노’라는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 인간 심리의 어떤 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는 ‘투사’의 문학적 미학을 논의한 바 있다. 조희정은 자연물에 대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으로 〈오우가〉를 분석하였다.<sup>11)</sup> 민담에서도 투사의 문학적 표현방식은 존재한다. 그리고 더불어 인간과 다른 존재를 등장시켜서 인간의 내면을 비춰내는 투사의 스토리텔링이 곳곳에 발견된다. 민담에서는 그 미학적 효과와 더불어 그 스토리텔링에 따라 인간의 원초적인 인지과정을 내보일 뿐만 아니라, 심리문제의 극복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를 중심으로 투사와 직면의 스토리텔링을 비교하면서 심리적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sup>12)</sup> 옛이야기에

9) 천혜숙, 「장자못 전설 재고」, 『민속어문논총』, 1983, 69쪽.

10) “설화에는 다층적인 원형적 의미가 함축되며, 이는 사람들의 세계인식의 정수 내지 총화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한 인식적 의미를 매듭처럼 집약하고 있는 서사요소가 화소(motif)이다. 설화의 화소는 이야기를 통한 세계인식의 결절점이라 할 수 있는바, 설화의 주요 화소에 담긴 인식 층위를 온전히 읽어내는 것은 인간과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417쪽.)

11)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 〈오우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579쪽.

12) 이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귀신의 저주〉 설화작품의 선행연구로 김정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정희는 〈귀신의 저주〉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와 비교하며 인간의 성적 욕망을 살펴보았으며, 소금장수의 성적 욕망

서 ‘(귀)신’은 왜 등장하는가? (귀)신의 분노는 우리 삶의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분노하는 신적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와 양 방향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인간 심리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야기가 생성되는 창작 원리를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옛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효용성을 지니는가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귀)신의 분노’ 화소에 투사된 인간의 두려움

옛이야기에서 초월적 존재가 분노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신이 분노하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간은 신의 분노에 두려움에 휩싸이며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 맥락을 수반하는 ‘신의 분노’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이야기 향유자들은 그 정서에 몰입되고 그 이야기 맥락이 나타내는 신의 질서를 인식하게 된다.<sup>13)</sup> 여기에서 신의 분노는 인간이 자연을 침범하는 행태에

이 삼신의 저주로 투사된 ‘편집증적 사고’라고 논의한 바 있다.(김정희, 「설화 〈아비 붙어먹으라는 삼신의 저주〉에 나타난 아버지의 문제와 저주의 의미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와 관련하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41~68쪽.) ‘투사’의 심리기제를 논의한 사안을 유사하지만, 이에 반해 본고는 주인공을 포함하여 전승주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로 투사되었고 일종의 강박적 인지기제와 닮아 있다고 주장하여 그 문학적 형상에 대한 견해를 주장한다. 또한, 본고는 위 작품과 함께 〈손병사 어머니〉 이야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설화는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위의 〈귀신의 저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 두려움의 투사와 다른 심리기제로 또 다른 치유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함께 다루었다. 이 작품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초월적 존재와의 대결’에 집중하면서 여성의 주체성과 통념을 거부한 능력을 논의하고 있다.(정경민, 「여성 이인(異人)설화 연구 : 기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1, 1~75쪽; 권복순, 「강목발과 손병사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339~359쪽.)

대한 임계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사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민담에서도 적용되는데, 그것의 세부들이 차이를 보이며 작품의 의미지향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 〈귀신의 저주〉<sup>14)</sup>라는 작품이다.

- (1) 한 소금장수가 집에 돌아가다가 묘 옆에서 잠이 들었다. 잠결에 어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오자는 대화였다. 다른 한 사람이 손님이 와서 못 간다고 하니 한 사람만 다녀왔는데, 아기 낳은 집에 다녀온 사람이 말하길 뒷간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밥을 하기에 더러워서 못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딸을 낳아서 ‘아비하고나 붙어 먹으라’ 하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 (2) 잠에서 깬 소금장수는 이들이 말한 집이 자기 집인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귀신의 말대로 아내가 딸을 낳았던 것이다. 소금장수는 자기가 붙어먹게 될 딸을 죽여야겠다고 배를 찌르고 집을 나왔다.
- (3) 세월이 흘러 소금장수가 한 잔칫집에서 어여쁜 여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하룻밤을 보냈다. 여자의 배에 흉터가 있어 사연을 물으니, 여자는 소금장수 아버지가 칼로 찢러 흉이 되었다고 답했다.
- (4) 깜짝 놀란 소금장수는 엄마가 살아 있느냐고 묻고는 자신의 돈을 모두 내어주고 이런 곳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시집가라고 말했다.
- (5) 그리고 소금장수는 뚝대에 목을 매

---

13) 신의 분노가 제시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홍수신화와 장자못전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홍수신화에서 침수는 신의 분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신과 인간 간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김재용, 『동북아 홍수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문제』, 『동북아 사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2000, 122쪽;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61~496쪽.) 여기에서 조현설은 신의 분노에 해당하는 ‘침수’의 현상을 자연의 자기보호를 위한 조정능력으로 해석한 바 있다. 장자못전설에서 신의 분노는 악인인 장자와 인간의 한계점을 넘지 못한 며느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써 드러나며, 전자는 인간 삶의 윤리성에 대한 처벌의식을 나타내고 후자는 ‘윤리성’에서 나아가 초월성이 반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4) 이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약 6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 원본의 서지사항은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였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 문학과 치료, 2009, 2072~2073쪽.)

달고 죽었다.<sup>15)</sup>

이 이야기는 (귀)신을 불경하게 대접한 집안에 근친상간의 저주가 내려지고, 그 운명을 피하려는 인간이 끝내 그 저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귀)신의 분노’가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귀)신의 저주로 표출되고 이야기의 결말은 그 저주가 실현되어 인간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의 질서’를 범하는 인간 - 귀신의 분노 - 인간의 좌절

이러한 구조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던 신의 금기와 관련된 이야기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분노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가 모호하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분노하는 초월적 존재는 과연 귀신인가, 신인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먼저, 이 민담의 전승주체들은 ‘조상 귀신’<sup>16)</sup>이나 ‘귀신’<sup>17)</sup> 내지 ‘삼신’<sup>18)</sup>으로 표현한다. 동일한 구조의 각편 6편

15) 이난자(여, 71), 〈귀신의 저주〉,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37~139쪽.

16) 유아기(여, 70), 〈딸을 버린 소금장수〉, 『한국구비문학대계』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964~966쪽; 김달심(여, 53), 〈저주 받은 딸〉,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87~388쪽.

17) 최유단(여, 85), 〈버린 딸인 줄 모르고 관계하려다 죽은 지아비〉,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550~551쪽; 이난자(1985), 위의 책, 137~139쪽; 박기심(여, 51), 〈소금장수와 딸〉,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036~1037쪽.

18) “그래 인자 저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 헌께로 이것이 삼시랑때 지애비를 붙어 먹으락 했은께,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배를 딱 끊어갓고 대밭이다 내뻘렸어요 (중략) 가이네가 말을 헌께 그 삼시랑때 헌 것이라.” (최봉남(여, 65), 〈딸과 정(情)을 통한 소금장수〉, 『한국구비문학대계』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03~305쪽.)

은 모두 주인공 소금장수가 “초분”에서 잠들었다가 (귀)신들의 대화를 듣게 된다고 나타나 이들이 무덤가의 귀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6편 중 2편에서는 “삼굿”<sup>19)</sup>이나 “삼시랑”<sup>20)</sup>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소금장수 집에서 벌어진 일이 ‘삼신’을 위한 의례에서 벌어진 일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될 시발점은 바로 ‘신의 질서’, 즉 신을 모시는 일에 대한 ‘불경건함’에 있다는 점이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분노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또한 이 작품을 분석한 구비문학연구자들 역시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한다. 먼저 임재해 논의에서는 “저주 받은 딸”은 조상귀신이 제사를 얻어 먹으로 갔다가 국에 구렁이가 들어가서 ‘지 애비 붙어먹으라’는 지독한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가 고스란히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보았다.<sup>21)</sup> 그리고 이 작품과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함께 논의한 김정희 연구에서는 “그 귀신들은 삼신인데,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가보니 변소에 있는 나무로 밥을 지었기에 불결해서 저주를 내리고 왔다고 한다.”며 “아이가 태어난 집에서 첫밥을 하여 삼신을 대접한다는 민속신앙”을 근거로 설명<sup>22)</sup>하였다.

동일한 구조의 각편 6편 중 5편에서 전승주체들이 ‘귀신’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소금장수 집안에 저주를 퍼부은 존재는 ‘귀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2편의 각편에서 나타나듯 삼신의 모시는 의례(출산 후 즉시 올리는 산밥)에서 시작된 사건임을 두고 보면 김정희의 견해 역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일본 민속학에서는 이 작품과 유사한 장면이 들어간 설화작품을 두고, ‘산신(産神)’<sup>23)</sup>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19) 박기심(1988), 위의 책, 1036~1037쪽.

20) 최봉남(1985), 위의 책, 303~305쪽.

21) 임재해(2007), 위의 논문, 281~333쪽.

22) 김정희(2011), 위의 논문, 48~49쪽.

23) 일본어에서 산신[うぶがみ, 産神]은 임신부와 아기를 보호하는 신으로 우리의 삼신과 유사한 개념이다.

어떤 해, 눈치 빠른 백성이 이 일을 맡았다. 무사히 상납을 마쳐서 귀국할 도중, 고가군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속 큰 나무 밑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나무뿌리를 베개로 해서 잠들었다.

한밤중이라 생각될 쯤에 그 백성이 사는 동네 방향에서 크고 빛이 나는 물건이 날아와서 큰 나무 동쪽 가지에 이르렀다. 잠시 후에 그 백성이 베개로 삼고 있는 나무뿌리 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오늘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빛이 나는 물건이 답했다.

“고가군 유라 마을에서 오늘밤 동서 이웃집에서 동시에 출산이 있었는데, 바로 이름을 지어 일곱 살이 되기 전에 운명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똑똑해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름을 지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무뿌리 밑에서

“그럼 그 운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무 위에 있는 빛나는 물건이 약간 웃으며

“남자 아이는 ‘기를 만들어서 팔기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한다’라고 쓰인 글을 양손 손바닥에 쥐고 태어났고, 여자 아이는 ‘만복(萬福)이 온다’라는 글자를 양손 손바닥에 쥐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했다.<sup>24)</sup>

24) “ある年、心利いた百姓がこの番に当たった。無事に貢納をすませて歸國する途中、甲賀の山で日が暮れてしまったので、しかたなく山中の大木の下で野宿することになり、木の根を枕にして寝た。眞夜中過ぎと思われころ、わが在所の方角から、大きな光る物が飛んできて、その大木の東の枝にとまた。しばらくすると、枕にして寝ている木の根の下から。「どうですか、今夜は何事かありましたか」と問う聲がする。光る物が答えた。「甲賀郡の由良の里にね、今夜、東西軒並に同時にお産がありました。さっそく名付けをして、七歳になる前に命をもらうつもりでいたのだが、この親たちが賢明で、胎内にいるうちに名を付けていたので、どうにもなりませんでした。」と語る。枕の下から、「それじゃ、果報はどうですか」と問う。木の上にいる光る物がちょっと笑って、「男の子は『箕を作って門々を賣り回るべし』と書いた文字を左右の手のひらに握って生まれ、女子は『作らずして万福来る』と書いた文字を左右の手に握って生まれました」

이 작품은 우리의 〈복 많은 백정딸〉과 닮아 있는 일본의 가마도가미(부뚜막신)의 내려담이다. 이 작품의 초반은 두 신적 존재의 대화로 시작된다. 먼 길을 떠났다가 귀가하던 한 백성이 산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적 존재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이때 신적 존재들 중 한 명은 출산을 한 집에 들렀다 오고 다른 한 명은 그가 다녀온 사연을 듣고 있는데, 출산을 한 집에 다녀온 존재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운명을 점치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신적 존재의 예언이 실현된다.

이 작품은 일본학계에서 ‘남녀의 복분’ 이야기 중 ‘재혼형’으로 분류하고 『신도집』의 〈부신사〉가 대표적인 선본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들은 모두 “길거리에 있는 신이 태어난 아이의 운명에 관여한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일본학계에서는 이를 “산신문답(産神問答)” 화소라고 칭하고 있다.<sup>25)</sup> 신적 존재가 아기가 태어난 집에 다녀오는 것,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에 대해서 삼신의 권능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태어난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존재로 보자면, 〈귀신의 저주〉 설화에서도 귀(鬼) 보다는 신(神)에 가까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분노하는 신적 존재가 귀(鬼) 혹은 신(神)의 정체를 보인다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승주체들의 인식에서는 소금장수 집안의 비극이 ‘신의 질서’를 범한 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승주체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더럽다’고 표현한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하는 문명적 인식이 전제가 되어 신을 대하는 태도의 경건함과 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새 생명의 탄생’에 있어 인간의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

と語る。” 이 원문은 『신도집』을 현대어로 풀어낸 주목문고본(赤木文庫本)을 인용하였다. (貴志正造, 『神道集』, 平凡社, 1967, pp.159~164.)

25) 飯島吉晴, 『竈神と廁神 異界と此の世の境』, 講談社學術文庫, 2007, p.50.

신의 질서는 아마도 새 생명의 탄생에 관하여 인간의 경건함과 정성을 가늠하는 기준과 규범일 것이다. 이치적으로 새 생명의 탄생에서 경건함과 정성은 윤리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게 하고 인간 삶을 지탱하는 가치와 규범에 해당한다.

여기에 (귀)신이 분노하는 장면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분노하는 장면'에 집중하면서 그 서사맥락을 두고 고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주로 표현되는 (귀)신의 분노에 긴장하게 된다. 과연 기존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린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저주가 실현되면서 인간이 좌절하는 결말을 목도한다.

이렇게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을 자극한다.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위의 소금장수와 같은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종종 출현하는 위협에 대하여 이미 내재된 두려움이 자극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서사적 맥락과 함께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남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되돌아보면, (귀)신의 분노와 인간 좌절의 실현이라는 서사 구조는 사실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비춰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에 결합된 서사적 맥락은 인간의 두려움을 투사적으로 표현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사(投射, projection)는 '자신의 심리적 경험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들이 투사를 통하여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인지를 다른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안정을 취하는 방어기제라고 본다.<sup>26)</sup> 즉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문학적 형상이며, 인간이 자

26) 프로이트 저·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41쪽.

신의 두려움을 초월적 존재의 ‘분노’로 전가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두려움과 (귀)신의 분노라는 이 대응적 관계는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과하며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논한 바대로 금기라는 화소가 ‘경계’, 삶의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결절점’<sup>27)</sup>을 의미한다면, (귀)신의 분노는 이러한 금기에 수반되어 있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발현하게 하는 서사적 요소이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이 스토리텔링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 이야기에서는 (귀)신의 분노로써 그 질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경계를 등한시한 무분별한 삶은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서사적 맥락을 통하여 새 생명의 탄생에 있어 어떤 가치에 준하여 임하는가의 문제는 불경건과 무절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인간의 자세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근친상간’의 가치와 규범도 함께 이야기한다. ‘근친상간’은 인간 문명의 기초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 비극의 스토리에서는 하나를 어기면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도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즉 귀신의 분노로 표현된 인간의 두려움은 한 번의 실수가 결국 큰 틀과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처벌’과 ‘비극’의 결말로 보면 결국 그 두려움이 비극적 현실로 확인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특성에서 그의 분노가 저주로 나타나고 그 저주가 실현되는 ‘처벌’의

27)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417쪽.

결말에 당위성과 권위가 부여된다.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두려움과 비극이라는 서사적 맥락 사이에 ‘막강한 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시작과 비극이라는 결과 사이를 인과적으로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으로서 ‘(귀)신의 권능’을 넣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가치와 규범이라는 ‘신의 질서’로 서사의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귀)신이 정한 것은 어찌할 수 없어’ 라는 사유방식일 텐데 이것이 비극적 스토리텔링을 추동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이 작품을 전승하는 주체들에게도 발견된다.

보내주고는 소금장사는 가서 배에, 뭇대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조사자: 그러니까 귀신 말대로 됐구만.] 응, 귀신 말대로 그렇게 한 번 귀신이 정해준게 할 수 없든가.<sup>28)</sup>

그런게서나 참 팔자 태인 도막(2)[주팔자에 타고난 것은, 은 할 수 없고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날 저녁으 거그서 자고서는 그냥 저그 집이로 가서는 한탄을 허고서나는 그 소금장사가 죽어버렸대야.<sup>29)</sup>

이 이야기를 전승하는 화자들 역시 비극적 결말에 대해 ‘(귀)신이 정한 일, 운명, 결국 그렇게 될 일’로 설명한다. 이러한 신념은 두려움이 현실로 확인되는 이야기의 전개에 부여하는 근거로 존재한다. 결국 (귀)신의 권능과 그 질서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결말인 셈이다.

문학에서의 ‘투사’ 방법은 창작의 기본 기술이라고 주장되어왔다. 조희정은 문학적 기법으로의 투사와 감정이입의 유사성을 논하면서, “투사의 주체와 투사의 내용 사이의 분리”를 그 차이점으로 말했다.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에는 없고,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된다는

28) 이난자(1985), 위의 책, 137~139쪽.

29) 유아기(1984), 위의 책, 964~966쪽.

점”을 ‘투사’의 특징으로 규정하였다.<sup>30)</sup>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 설화 작품에서 분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귀)신의 권능’이 바로 투사적 스토리텔링의 핵심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를 등장시켜 신의 권능으로 분노하고 경계를 넘어선 인간을 처벌하는 이야기를 상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두려움의 투사체인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 인간의 좌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신적 존재는 일종의 가치체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지프 캠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은 인간 삶과 우주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가치체계의 화신(化身)에 해당하고,<sup>31)</sup> 인간에게 분노하는 (귀)신의 형상은 그 가치체계<sup>32)</sup>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그 경계의 선을 인간에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승, 향유하는 주체들이 신념화하거나 지지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분노하는 (귀)신’의 형상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심리적 위안 효과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뚜렷해진다. 소금장수에게 벌어진 일과 (귀)신이 분노한 까닭, 그 시선을 따라가면 배설의 공간과 탄생의 공간을 휘저어놓는 존재, 즉 삶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두려

30) 조희정(2009), 위의 논문, 579쪽.

31)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저,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플리오, 2002, 61쪽.

32) “신화에서는 말하는 메시지는 전승집단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실재에 대한 경험이다. 이 본질적 실재는 신화전승집단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과 그 삶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무엇이다.” (오세정, 「상징과 신화 - 신화형성화와 의미화의 상징적 논리」, 『시학과 언어학』 7, 시학과 언어학회, 2004, 38쪽.) 오세정의 견해와 같이 신적 존재의 등장은 전승집단의 사상과 가치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체계는 우리의 생활세계를 운영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틀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의 분노’가 제시된 민담에서는 인간 삶에 흔히 보이는 신앙적 관습 및 신앙적 신념, 혹은 속신문화에 해당될 수 있다.

움과 경계심을 '(귀)신의 분노'로 대변하는 것이며, 비극적 결말은 기존 가치와 규범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두려움을 처리하는 투사적인 방법이다. 이때 처벌의 역할은 투사적으로 표현된 '인간의 두려움'에 '통제'의 힘을 발휘한다. 결국 투사의 스토리텔링은 두려움과 경계심의 요인을 강력한 질서로 통제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불안하고 위협한 것을 누를 수 있는 통제의 힘인데, 두려움을 자극하는 원인을 처벌하면서 얻는 위안은 바로 '통제'이다. 이는 강박 심리와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강박성향의 근거에는 '불안'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데, 자신이나 외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강한 통제 욕구를 품고 완벽을 지향하는 것이 강박성향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그리고 통제 욕구와 처벌의식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서사의 전개는 '한 번의 실수가 결국 큰 틀과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 역시 강박성향의 자동적 사고, 즉 인지 흐름과 아주 닮아 있다. 그러니까 통제 욕구와 완벽에 대한 기대 등이 '(귀)신의 분노'라는 문학적 상상을 추동하는 강박적 심리의 근간일 수 있다.

더불어 (귀)신의 분노와 처벌로 대체된 투사적 표현은 일종의 정치적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는 자신의 권력 일부를 신과 영혼에게 투사한다."<sup>34)</sup>고 했듯이, 프로이트가 투사에 대해서는 망상증과 같은 병리 현상에 서부터 미신이나 물활론과 같은 정상적인 사유 형태에도 투사의 기제가 작용한다<sup>35)</sup>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신적 존재의 권능을 빌려 표현된 무수한 가치와 규범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위 이야기와 같이 신적 존재의 권능과 질서를 옹호하는 스토리들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33) 신민섭·설순호, 「강박 장애의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7,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7, 17~40쪽.

34)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 (더나은복지생활 <https://www.welfare24.net/>)

3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1025쪽.

수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 단단하게 한다. ‘(귀)신이 노하였다’라는 담론 그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인간 심리가 조성되는 효과이자,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인간 욕망에 대하여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신적 존재의 입을 빌려와 담론의 권위를 신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이 신념이 공고히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는 만큼 ‘(귀)신의 분노’에 결합된 담론은 위험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

### 3. 두려움의 투사와 직면의 스토리텔링 및 치유의 의미

〈귀신의 저주〉는 (귀)신의 분노 앞에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가를 투사적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투사의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로 향한 통제 욕구를 반영하면서 두려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적 존재의 권능을 빌린 투사의 방식은 본질적인 한계를 노출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병리적인 투사에 대해 “투사는 개체의 욕구나 감정이 행동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해소되는 것을 방해”<sup>36)</sup>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투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는데, 그것에는 개인의 투사된 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믿는 정도, 즉 현실 검증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담 속 투사적 스토리텔링에서도 (귀)신에게 처벌받는 인간의 비극을 남겨두는 한계가 있다. 두려움 내지 죄의식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귀신의 저주〉에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야기의 흐름도 역시 두려움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이며,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스토리 전개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의 분노와 인간의 좌절이라는 스토리 공식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점이

36)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4, 학지사, 2016, 1~599쪽.

중요하다.

그런데 민담에서는 이 서사적 분기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도 있다. 귀신의 분노에 의혹을 제기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귀신에게 집터 내주지 않은 아버지〉와 〈귀신 섬기지 않은 손병사 어머니〉가 그러하다.<sup>37)</sup>

(1)한 남자가 있었는데, 하도 방탕하게 살아 가족들이 살 곳도 없었다. (2)이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무에 공을 들이자, 대번 귀신이 나무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당산이라고 했다. (3)방탕한 남자가 살 곳이 없자, 이 나무를 베어내려고 했다. 마을사람들이 당산을 무너뜨린다고 걱정했지만, 남자는 누구하나 방을 준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아들 셋과 함께 나무를 베고 집을 지었다. (4)하루는 벼락이 치면서 목신이 와서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큰아들을 잡아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남자는 평생 처음으로 집이 생겼는데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목신은 흉악한 놈이라고 가버렸는데, 이튿날 큰아들이 죽어버렸다. (5)그날 저녁 목신이 또 찾아와 이번에도 나가지 않으면 둘째 아들을 잡아간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남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 날 둘째아들 역시 죽었다. (6)저녁이 되자 목신이 또 찾아와 막내아들도 잡아간다고 하니, 남자는 막내아들뿐 만 아니라 자기도 잡아갔다고 했다. (7)그러자 목신은 남자의 행동을 생각하면 잡아갔지만 오대문도대장(五大門都大將)에게 어찌 손을 데겠느냐며 그냥 가 버렸다. (8)이후 막내아들은 아버지와 근근이 살다가 그곳을 떠나 양반집 하인들이 있는 곳에 갔다. 거기에서 양반집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을 훑쳐보며 독학했다. 그리고 막내아들은 양반집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 따라 가서 과거를 봤는데 합격을 해서 오대문도대장 벼슬을 했다.<sup>38)</sup>

37) 〈귀신에게 집터 내주지 않은 아버지〉와 〈귀신 섬기지 않은 손병사 어머니〉는 각각 『한국구비문학대계』에 9편, 14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정보와 줄거리, 원본의 서지사항은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였다.(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 치료, 2009, 366~371쪽;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 치료, 2009, 359~365쪽.)

(1)손병사 할아버지 손선달이 서울에 놀러갔다 돈이 떨어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손선달은 큰 곳에 구경갔다 한 무녀를 알게 되었는데, 이 무녀가 손선달이 마음에 들어 돈을 주었다. 손선달은 그 돈을 받아 고향 밀양으로 돌아왔다. (2)무녀가 밀양에 와서 그를 찾으니 손선달이 모른 척 하였다. 무녀는 기가 막혀서 그 집 후원에 목을 매고 죽어버렸다. 그 뒤로 손선달네 집에서는 무녀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탈이 났는데, 그래서 후원에 무녀의 사당을 짓게 되었다. (3)그 후 손병사 어머니가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손병사 어머니는 시택 후원에 있는 무녀 사당을 보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당장 불을 지르라고 하였다. 사당이 불에 타버리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어디 두고 보자고 하였다. (4)얼마 후 손병사 어머니가 이들을 낳았는데, 무녀의 혼이 와서 잡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손병사 어머니는 겁을 내지 않고 잡아가라고 했다. 다음 날 아들이 죽어버렸다. (5)손병사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무녀의 혼이 나타나 협박했다. 손병사 어머니는 겁을 내지 않고 잡아가라고 했다. (6)그러자 무녀의 혼은 그동안은 죽을 사람이라 죽은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자신도 잡아가지 못한다고, 당신을 못 이기고 돌아간다고 하고 가버렸다. (7)그렇게 태어난 것이 손병사이다.<sup>39)</sup>

두 작품은 나무귀신과 무당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인간의 불경건함에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저주가 실현되었지만,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 결국 초월적 존재는 자녀의 운명이 자신의 권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간다. 이 두 작품의 공통된 서사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8) 양만수(남, 78), <당산나무 귀신>, 『한국구비문학대계』 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17~221쪽.

39) 하술원(남, 79), <손병사 어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91~96쪽.

'신의 질서'를 범하는 인간 - 귀신의 분노 -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극복

이 서사적 맥락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1)귀(鬼)라는 존재, (2)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다. 앞서 '(귀)신의 분노' 화소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고, 그 처벌과 비극이 스토리는 그 두려움이 현실로 지각되는 심리와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에서 위 두 이야기는 다른 길로 향하는데, 이때 이 이야기들은 인간 두려움의 투사체인 초월적 존재를 '귀(鬼)'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을 보여준다.

먼저 인간 두려움이 투사된 존재에 대해서 논하자면, 앞서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와 서사적 맥락을 통해 사람들의 두려움과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상 및 가치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귀신의 저주> 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하여, 분노하는 귀신을 통해 '인간의 두려움'에 '통제'의 힘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신적 존재의 불명확성 속에서도 그 권능을 신념화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귀신에게 집터 내주지 않은 아버지> 와 <귀신 섬기지 않은 손명사 어머니> 두 이야기에서는 초월적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한다. 텍스트에서 분노하는 존재가 왜 귀신이 되었는가 내지 이 집단(가족)은 왜 귀신을 섬기는가의 문제를 상세하게 드러난다. <귀신의 저주> 와 달리 분노하는 초월적 존재가 누구인지 더 명확히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다. 바로 신적 존재에게 투사된 인간의 두려움을 직면하여 그 정체를 뚜렷하게 밝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이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두 이야기는 귀(鬼)라는 존재를 명시하며 신과의 구별점을 드러

낸다. 신의 질서가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힘 내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규범을 상징한다면, 귀신은 과연 우리는 이것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의혹을 품게 한다. 그렇게 신적 존재의 분노와 그 처벌이라는 서사 논리를 견고하게 떠받치는 ‘(귀)신의 권능’에 의혹을 품으면서 초월적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보는 것, 직면하는 것이다.

귀신 이야기들의 유형을 밝히고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설한 임재해는 위의 두 이야기를 논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귀신의 위력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강하면 얼마든지 귀신을 퇴치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303) ...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귀신의 능력을 초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이야기 속에 갈무리 되어있다. 따라서 귀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섬기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다.(305) ... 섬김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집약되어있다.(328)<sup>40)</sup>

이는 민담 속 귀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해석이다. 두 이야기의 귀신은 앞의 〈귀신의 저주〉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귀신의 저주〉에서는 ‘신이 정한 일, 운명, 결국 그렇게 될 일’로 분노하는 귀신의 권능을 확인하는 비극적 결말을 끌어간다면, 귀신을 섬기지 않는 이야기에서는 왜 귀신이 횡포를 부리는지에 대한 전사를 제시하여 그의 권능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한다. ‘귀신에 복종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귀신에 투사된 ‘두려움’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게 하는 것이다.<sup>41)</sup>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에 있다.

40) 임재해(2007), 위의 논문, 303~328쪽.

41) 앞의 〈귀신의 저주〉에서 신적 존재들은 무덤가에 머물며, 삼신의 의례에 얻어먹으러 갔던 혼령에 가까우면서도 그 존재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을 섬기지 않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는 사당나무신으로 서낭신이자 마을 신의 신격을 보유하는 존재이다. 귀(鬼)의 특성과 신(神)의 특성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후자의 작품들이 더욱 신(神)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자손을 잡아간다고 위협하여도,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바로 귀신에 도전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귀신에게 투사되었던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인간을 나타낸다. 이들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두 이야기 역시 <귀신의 저주> 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운명’을 위협하는 귀신이 등장한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역시 생사와 관련하여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생과 사의 영역은 신의 권역,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해왔다. 게다가 자녀에 대한 생사의 문제는 더욱 인간을 나약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지식 운명의 갈림길에 불쑥 등장한 귀신의 분노는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자 미지의 그 불투명한 원리에 불쑥 솟은 인간의 두려움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학적 형상에서 드러난 바, 두려움을 ‘(귀)신의 분노’로 투사하는 심리적 습관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특히 ‘자녀의 운명’에 대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난임을 겪는 여성들의 고민 중)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갔는데 집안에 애 못 낳고 죽은 조상이 있다고 그러고 ... (반복되는 임신 실패에) 진짜 조상 탓인가 싶네요.”

“신점을 보러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저에게 얘기귀신이 울며 따라 다닌다, 하는 일 모든 걸 막고 있다, 곳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번 얘기는 절대 없거나 생겨도 장애아 아픈 얘기를 낳을 꺼다,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유산경험이 있어서 태아부적이라는 게 있다고 ...”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넷 공간에는 종종 위와 같은 내용의 고민들이 올라온다. 대체로 무속인에게 들은 처방으로, 임신과 출산을 가로막는 ‘귀(鬼)’가 존재하여 별도의 처방으로 그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왜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의 운명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자신의 신체에 얽혀 있어 막중한 책임감에 억눌리고, 실패의 반복으로 이에 대한 ‘두려움’이 팽창될 때 미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귀)신의 분노’라는 매커니즘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며 자신의 이익을 뒤에 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장 말미에서 말한 ‘귀신의 분노’로써 담론의 권위를 채우는 악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의 정체를 직면하는 용기<sup>42)</sup>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이 주인공들은 〈귀신의 저주〉 속 소금장수와 다르다. 소금장수는 귀신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저주에서 도망치려고만 하였다. 자신과 함께 비극으로 묶인 저주의 대상 딸을 죽이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두려움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면서도, 실상은 인생살이에 대한 부조리와 오만이기도 하다. 소금장수의 대응은 한 자녀를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한 부조리와 오만이면서, 가부장으로서 자기 욕망대로 불운한 자녀를 제거하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소금장수의 두려움 속에는 이미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모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신에 대한 의례가 불경건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던 부조리와 폭력성이 이 비극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어찌면 우리는 〈귀신의 저주〉에서 저주로 표출되는 귀신의 분노를 바라보면서, 그

42) 신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위는 신들의 눈으로 보면 오만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용기이다.(김선자(1999), 위의 논문, 26쪽.)

안에 신적 존재의 예언과 계시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귀신을 섬기지 않은 인물들은 이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귀신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귀신을 피하지 않고, 자녀의 비극적 운명을 직면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냉정하고 잔인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하는 결과는 귀신이 저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더 이상 귀신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고, 귀신이 자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귀신을 섬기지 않는 가정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주인공이 된다. 이는 기존 가치와 규범에 억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 일인데, 신(神)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와 가치를 상징한다면 여기에서 귀신은 인간이 극복해야할 기존 질서와 가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이 주인공들이 두려움을 넘어 직면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는 인간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인습 내지 악습을 표상한 문학적 형상인 것이다.

이 민담을 향유하는 우리들 역시 주인공들과 함께 투사에서 시선을 돌려,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 더 이상 귀신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귀신에 저항하고 나니 밝혀지는 진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녀의 탄생과 죽음, 그 운명은 자녀의 몫이라는 진실이다.

설화 속 금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신적 질서’의 발현이며,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관한 거시적인 담론의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이에 귀신을 섬기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고 부조리한 가치와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자녀의 운명에 대하여 ‘내가 세운 가치와 규범으로 우뚝 선 부모’이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저항하며 자신의 법칙을 내세우는 모습인 것인데, 신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가치와 질서를 선택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확신하는 가치와 질서를 선택하는 용기에 집중하자면, 민담 속

‘분노하는 귀신’의 형상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귀신의 분노와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투사적 매커니즘 속에서, 민담은 (귀)신과 내 안의 신이 대결하는 형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형상들은 인간이 상상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안에 특별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현실을 수용하려고 한다. 이때 귀신을 상상하면서,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신적 존재로써 어디에 숨어서 인간세상을 조정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혹된 신념이다. 밝고 긍정적인 힘보다,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귀신의 장난을 상상하는 것, 우리 삶을 혼드는 모호한 것들의 표상이 바로 귀신이라는 형상인 것이다. 그것은 무속이나 신화 속 신(神)과는 엄연히 다른 인간 삶을 해방하는 왜곡된 힘이다.

‘귀신의 분노’ 화소가 포함된 민담은 바로 이에 대한 인식의 문제 내지 그에 대한 대처가 함께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는 인간의 두려움을 투사한 대상이고, 이 민담들은 두려움만 앞서서 중요한 근거를 무시하고 작은 단서에 집착할 때 결국 투사의 오류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문제를 보여준다. 인간의 인지와 인간이 상상한 문학의 서사가 유사한 형태라고 할 때, 강박적 투사의 인지적 오류와 부정적 신념의 전형이 <귀신의 저주>의 서사와 닮아 있는 것이고, 그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과정이 귀신을 섬기지 않은 이야기들의 서사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의 분노에 함몰되는 인간의 비극, 그리고 귀신의 분노에 대항하면서 그 왜곡을 파헤치는 인간의 승리, 두 갈래의 서사는 알 수 없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인지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왜곡된 신념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양 갈래의 길을 제시한다. 앞서 귀신의 분노에 반영된 왜곡

된 신념은 우리의 현실에도 자주 나타나는 오류들이라 지적했다. 이에 ‘귀신의 분노’를 그려내는 민담들은 귀신의 횡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 길, 우리를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구원해줄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특히 자녀의 운명에 쉽게 흔들리는 부모들을 위해, 기존 가치에 저항하며 ‘자신의 법칙을 중심에 둔 양육의 지혜’<sup>43)</sup>를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현실적인 치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곧 내 안의 신(神), 나의 법칙을 내세워 외부의 귀신을 물리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민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다.

#### 4. 결론

이 연구는 ‘귀신의 분노’ 화소와 그 민담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투사적 심리기제를 논의하였다. 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담긴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어떤 현실문제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이나 현실대응인가를 분석하고 민담의 치유적 효용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인간의 감정과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이자, 인간의 인지기제와 서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를 포함한 민담은 〈귀신의 저주〉가 대표적이며, 이 작품은 신의 질서를 범한 인간이 귀신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 저주로 결국 비극적 운명에 좌절된다는 서사로 전개된다.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에 인간의 좌절이라는 서사적 맥락이 결부되어 있는 바는 민담의 전형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고는 귀신의 분노에 대응하는

43) 문학치료학에서는 부모서사의 지향점을 나의 법칙을 중심에 두고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양육’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87쪽.)

인간의 두려움을 주목하면서 이 화소에서 투사의 심리기제를 발견하였다.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사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그 인지과정이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와 그 서사적 맥락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두려움과 귀신의 분노는 상반된 특성을 보이지만, ‘투사’의 방식으로 대응되는 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귀신의 분노라는 화소는 두려움을 투사하는 인간의 방어기제가 반영되어 있는 문학적 상상력인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투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투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병리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그 차이는 현실 검증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에 3장에서는 분노하는 귀신이 인간 두려움의 투사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위안과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 투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왜곡된 투사에서 해방되는 또 다른 민담들을 제시하였다. <귀신에게 집터 내주지 않은 남자> 와 <귀신 섬기지 않은 손병사 어머니> 가 그것이다. 두 작품은 신의 질서를 범한 인간이 귀신의 분노를 사게 되지만, 그에 저항하며 의지를 관철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중국에는 귀신 스스로 인간 운명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음을 토로하며 물러서고, 귀신에 맞선 이들은 새로운 가정문화를 구축하는 ‘부모’로 우뚝 선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두려움이 귀신의 분노로 투사되는 과정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면서, 두려움의 투사체인 귀신의 정체를 직면하고 승리하는 서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민담들에 공통분모인 ‘분노하는 (귀)신’이라는 화소는 인간 두려움의 투사체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존재로서의 두려움 내지 회피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갈래의 스토리들은 두려움과 회피욕망에 매몰되어 중요한 근거를 무시하고 작은 단서에 집착할 때 결국 투사의 오류에 빠질 위험을 보여준다. 인간의 인지구조와 인간이 상상한 문학의 서사구조가 유사한 형태라고 할

때, 강박적 투사의 인지적 오류와 부정적 신념의 전형이 〈귀신의 저주〉의 서사와 닮아 있는 것이고, 그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과정이 귀신을 섬기지 않은 이야기들의 서사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신의 분노’가 드러난 민담들은 각 서사간의 관련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귀신의 저주〉에서부터 귀신을 섬기지 않는 이야기들에까지, ‘귀신의 분노’를 기점으로 하여 그 두려움에 매몰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헤치고 사태를 직면하는가에 따라 양 갈래의 길로 나뉘면서 비극과 승리의 결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길은 투사의 왜곡에 휘말려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서사이고, 두 번째의 길은 투사의 왜곡에서 헤쳐 나와 사태를 직면하면서 성공하는 서사이다. 여기에 반영된 다중(多衆)의 문학적 상상력은 두려움에 대한 비관적이거나 성찰적인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담의 두 갈래 서사를 향유하면서 비관과 성찰의 두 갈래 길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다시 사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복순, 「강목발과 손병사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339~359쪽.
- 貴志正造, 『神道集』, 東京:平凡社, 1967, 1~331쪽.
- 기념논총편집위원회, 『민속어문논총』, 1983, 1~674쪽.
-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 장자못 전설과 함호(陷湖) 전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1,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1~33쪽.
- 김재용, 「동북아 홍수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문제」,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2000, 99~122쪽.
- 김정희, 「설화 〈아비 붙어먹으라는 삼신의 저주〉에 나타난 아버지의 문제와 저주의 의미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와 관련하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41~68쪽.
-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4, 학지사, 2016, 1~599쪽.
- 박순호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884쪽.
- 박순호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46쪽.
- 飯島吉晴, 『竈神と廁神 異界と此の世の境』, 東京:講談社學術文庫, 2007, pp.1~329.
-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417~446쪽.
-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 : 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 한국화법학회, 2016, 59~92쪽.
- 신동훈, 「인지기제로서의 스토리와 인간 연구로서의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회, 2016, 59~104쪽.
- 신민섭·설순호, 「강박 장애의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7,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7, 17~40쪽.
- 오세정, 「상징과 신화 - 신화 형성과 의미화의 상징적 논리」, 『시학과 언어학』 7, 시학과 언어학회, 2004, 21~62쪽.
- 윤주필, 「귀신이야기의 설화적 전통과 범주」, 『도술어문』 13, 단국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11~37쪽.
- 이현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46쪽.
-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

- 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281~333쪽.
- 정경민, 「여성 이인(異人)설화 연구 : 기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1, 1~75쪽.
- 정상박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1278쪽.
-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23, 문학과 치료, 2009, 1~3774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87쪽.
-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저,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1~415쪽.
-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461~496쪽.
-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 : 〈오우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573~603쪽.
- 최덕원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678쪽.
- 최래옥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785쪽.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442쪽.
- 프로이트 저·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1~292쪽.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1~1126쪽.
- 황국명, 「현단계 서사론의 과제와 전망」, 『인간·미래』 4, 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 8~11쪽.
-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 (더 나은복지생활 <https://www.welfare24.net/>)

ABSTRACT

The storytelling method of folktales with the motif of “Ghost anger” and the psychological problem of “projection”

Park, Jai-i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torytelling method of folk tales is related to human psychology to explore the comfort and healing that humans have sought through the literary act of imagining the transcendent existence of “ghosts.” In particular, in folktales including the “ghost anger” motif, psychological problems in reality can be found along with human literary imagination. This is represented in “The Curse of the Ghost,” which unfolds as a narrative in which a human who violates God’s order faces the wrath of a ghost and is ultimately frustrated by a tragic fate due to the curse. The motif of this story reflects the projection defense mechanism. The story resembles the cognitive distortion of the desire to avoid fear and compulsio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unrealistic projections and the dangers that a distorted projection can cause, narratives that avoid a distorted projection also convey an important meaning. Stories featuring characters who do not serve ghosts depict the confrontation between an angry god and a human who enforces his will. Finally, the demon acknowledges the limits of his power and shows the end of backing away. These works go to a different path in the process whereby human fear is projected as the wrath of a ghost, leading to a narrative in which one can face the identity of the ghost, the projectile of fear. Assuming that the human cognitive form and folktales are similar, one of the two types is a narrative that fails to properly assess the situation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the projection. The other narrative overcomes the distortion of projection and succeeds in confronting the situation. These two types represent the

---

\* 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pessimistic and reflective thinking of humans, respectively, in the face of fear.

**Key Words** Ghost anger, human fear, the storytelling method of folktales, projection defense mechanism, cognitive distortion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	